

WTO와 中小企業

李 揆 哲

(中小企協中央會 調査2部 動向分析課長)

一. 머리말

今年, '95年은 世界貿易史에 새로운 劃을 긋는 歷史的 始發點이 되는 한해 이다. 과거 第2次 大戰以後 冷戰體制下에서 約50 余年間 慣行되어 왔던 GATT가 WTO(World Trade Organization : 世界貿易機構)體制로 轉換된 것이다. 우리가 願하든 願치 않든, WTO體制는 始動을 하였다는 點에서 주사위는 이미 던져 졌다고 해야 할 것이다. WTO는 한 마디로 自國市場의 全面的開放, 卽 國際間 交易의 世界化라고 要約할 수 있다. WTO는 우리가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國際通商의 主役이고 世界史의 大勢이므로 우리는 WTO의 正體를 徹底히 分析하고 把握하여 이에 適切히 對應하고 適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무엇 보다도 WTO體制는 어느 特定 國家의 利益이나 個別企業에만 有利하게 適用되거나 運營되지 않는다는 點에서 GATT와는 區別되고 이 點에 또한 留意하여야 할 것이다.

二. WTO體制的 出帆

GATT의 代打로서 登場한 WTO는 國家間의 交易·通商을 規律하는 새로운 GAME規則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GAME에 참여하는 모든 팀(交易國)들은 WTO가 定하는 制限된 범위內에서 公正한 競技를 치러야 할 것이 要求된다. 때문에 WTO는 모든 運動경기의 규칙이

그러하듯 어느 팀, 어느 選手에게나 公平하고 劃一的으로 適用될 뿐이다. 과거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 관세 및 무역일반협정)體制下에서는 交易國 雙方間에 또는 多國間協商을 통해 自國의 交易協商을 有利하게 展開하여 實利를 取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게 事實이다. 때문에 相對的으로 交易量이 적거나 立超國은 交易協商에서 有利한 高地를 古할 수도 있으며, 또 경우에 따라서는 協商過程에서 自國의 利益增進을 위해 必要한 制度的 措置를 마련하여 취약한 特定産業이나 特定分野를 支援하고 育成하여 保護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慣行德分에 우리나라의 中小企業이 그나마 國內市場에서 存立基盤을 구축하고 海外市場에도 進出하여 國際競爭力을 다지며 우리나라 輸出增大에 크게 寄與해 왔음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事情은 달라진 것이다. WTO體制下에서는 과거의 그러한 보호적기능이 許容되지 않기 때문이다. 어느 國家를 막론하고 WTO體制下에서는 自國의 市場을 完全開放하게 된다. 즉, 國內市場은 國境없는 하나의 地球村化(Globalization)로 변모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여기에 우리政府나 企業이 어떻게 WTO體制를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느냐 하는 現實的인 도전과 선택의 어려움이 있다.

I. 中小企業側面에서의 WTO

WTO의 出帆으로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게 되는 쪽은 아무래도 中小企業側面이다. 相對

의므로 自生力基盤이 취약한 中小企業이야 말로 政府의 WTO體制에 對備한 世界化政策에 直接的이고도 卽刻的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卽, 政府가 世界化戰略·政策을 어떻게 選擇하느냐에 따라 中小企業의 運命이 左右된다고 해도 過言이 아닌 때문이다.

昨年 한해 우리 中小企業은 무려 11,255個나 당좌거래정지되어 史上 最惡의 倒産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러한 倒産이 구조조정 의 과정에서 限界産業 또는 斜陽企業의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으나 WTO體制의 出帆으로 그 간의 中小企業에 對한 各種 支援策이 禁止되거나 縮小되는 경우 이러한 不渡沙汰는 더욱 加速化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WTO體制가 出帆한다고 해서 우리 中小企業의 經營기반이 弱화되고 국제시장에서의 競爭力을 잃게 된다면 中小企業의 설 땅은 그 만큼 축소되고 數의으로도 적어지게 되어 國民經濟와 社會安定에도 惡影響을 미치게 됨은 勿論 政府가 추진하고 있는 企業의 世界化戰略에도 큰 차질을 빚는 結果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政府는 中小企業側面에서 世界化戰略을 수립하고 整備·補完하여 올바른 方向을 提示함과 同時에 모든 中小企業이 政府의 政策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信賴感造成도 先行되어야 한다.

Ⅱ. 中小企業과 世界化

世界化란 用語에 對하여 우리는 여러가지로 定義할 수 있다. WTO의 出帆과 함께 各國 市場이 全面 開放化되면서 世界化는 당연한 추세이고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어필하고 있다. 經濟나 企業經營의 側面에서 世界化란 단순히 그 規模나 物量面에서만 世界的범위로 擴大하거나, 活動범위를 세계무대로 넓히거나 또는 生産設備을 세계 도처에 基地化하는 것만을 意味한다고 인식해서는 안될 것이다. 오히려 先進國의 大企業이나 多國籍企業들의 경우를 보면 規模를 最大限 縮小하여 經營組織과 企業運營도 最精銳化를 꾀함으로써 競爭力을 높이는데 焦點

을 두고 있는 實情이다.

그러므로 企業은 고객의 立場에서 고객의 원하는 바를 다른 경쟁업체보다 먼저 파악하고 需要變化에 발 빠르게 대처하여 보다 良質의 製品과 서비스를 迅速히 提供함으로써 고객의 만족을 極大化시켜 나가는 企業만이 살아남고 世界化 經營전략에도 부합한다고 하겠다. 때문에 企業의 外形的인 規模의 大小가 꼭 世界化와 密接한 關係가 있다고는 할 수 없고 오히려 작은 規模의 企業들이 世界化의 經營전략을 수행하는데 더 有利하라는 逆說도 可能하다는 것이 一部 經營전문가들의 見解이다.

대부분의 學者나 經營전문가들에 依하면 다가오는 21世紀는 多品種少量型의 尖端技術製品이 主流를 이룰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요사이 신문지상을 보아도 하루가 다르게 同種製品이면서도 새로운 형태의 多機能인 小型新製品이 質과 價格面에서 기존의 類似製品을 능가하여 市場의 占有를 늘인다는 記事를 接하게 된다

결국 世界化는 새로운 製品과 서비스를 開發하여 새로운 市場을 創出하거나 또는 기존 製品에 依한 기술혁신을 통하여 顧客만족을 極大化시켜 나가는 過程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側面에서 中小企業은 스스로의 自生力을 培養할 수 있도록 自救努力해 나가야 하고 政府側에서는 이러한 方向에 着眼하여 WTO體制內에서 中小企業을 支援할 수 있는 方案을 講究해 나가야 할 것이다.

中小企業의 育成·保護를 통한 中小企業의 數的 擴大만이 國家競爭力 次元에서도 바람직한 經濟運營이기 때문이다.

三. 中小企業을 위한 政府의 役割

WTO體制의 突入으로 中小企業이 世界化를 單單히 推進할 수 있도록 政府가 해야 할 役割에 關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Ⅰ. 補助金支援 關係

먼저 WTO協定에 依하면 從前의 各種 補助金支援制度는 全面 廢止되어야 할 形편이다. 政府側의 分類에 따르면 WTO體制下에서 認定되는 産業補助金의 性格은 모두 126개로서 그 가운데 禁止補助金에 해당되는 支援制度는 22개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중 10개는 우리의 조세감면법에 규정된 各種 稅額控除나 輸出補助金이며 그 밖에 중소기업기반조성을 위한 설비투자자금, 환경보전자금, 中小企業製品購買資金, 工業發展基金中 織物業種에 對한 合理化事業支援, 에너지利用合理化資金 등이 있다. 이러한 禁止補助金은 WTO出帆후 3個月 以內에 WTO側에 通報하여 先進국은 3年內에, 開途國은 5年 또는 8年內에 廢止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當初 開途國으로 分類되어 1999년에서 2002년까지 폐지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美國側이 한국을 개도국에서 除外시키려는 움직임 때문에 자칫하면 앞으로의 協商如何에 따라 1997년까지 廢止하여야 될지도 모른다고 한다. 그러므로 그때까지는 現行 産業支援制度의 범위내에서 21세기를 주도해 나갈 반도체, 情報, 通信産業等の 分野에 中小企業들이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政府의 積極支援이 集中되어야 할 것이다.

禁止補助金を 除外한 相計可能補助金은 43개, 계속 施行이 가능한 許容補助金은 61개가 되는데 禁止補助金과 相計可能補助金에 속하는 것들을 許容補助金화하도록 그 性格과 內容을 바꾸어 中小企業支援이 中斷없이 이어지도록 하는 政府側의 노력이 要望된다.

WTO體制下에서도 政府의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中小企業의 支援이 얼마든지 可能하며 이런 点에서 WTO의 出帆으로 政府의 中小企業支援政策이 축소되거나 폐지되어서는 않되고 오히려 기존 지원정책의 내용과 방법을 바꾸어 나가는 戰略的인 對應等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Ⅱ. 社會間接施設의 擴充

國內市場의 全面開放이 不可避한 實情에서 우

리政府가 時急히 着眼하여야 할 것은 우리의 落後된 社會間接施設을 先進國水準으로 level-up하는 方案이다.

産業構造의 高度化와 世界化를 위해서도 기존의 도로, 항만, 통신시설 등을 개선하고 확충하는데 政府는 投資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現在와 같은 수준의 우리社會間接施設 여건하에서는 우리企業들이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 밖에 資金力이 弱한 中小企業을 위하여 公해방지시설이라든가 폐기물처리시설등과 같은 각종 설비를 政府가 資金支援하는 길도 열어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Ⅲ. 教育·訓練의 強化

우리企業이 WTO體制下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고 世界化에 適應하기 위하여는 무엇 보다도 企業에 從事하는 人力의 資質向上과 技術力의 培養이다.

이를 위해서는 政府와 企業이 共同으로 世界化戰略推進에 필요한 教育·訓練 Program의 편성과 內容을 共同으로 마련하여 世界化가 順調롭게 이루어 지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世界化推進에 必要的한 人力뿐만 아니라 첨단산업분야의 高級人力 내지는 첨단시설을 조작하고 活用할 수 있는 專門技術人力 및 해외시장에서의 marketing도 능숙하게 遂行할 수 있는 專門經營人力의 供給도 持續的인 教育和 훈련을 통하여 排出될 수 있도록 政府側의 果敢한 支援策이 講究되어야 한다. 그 實效性있는 支援等의 하나가 현재의 工業高等學校, 專門大學 및 그 밖의 技術訓練所等을 該當業種의 中小企業들과 연계하여 具體化하고 先進化시켜 나가는 作業이다.

이러한 作業의 併行과 함께 長期的인 教育·훈련계획을 수립하여 中小企業特性에 맞는 技術, 技能 및 經營人力을 養成하고 供給하는 細部的戰略을 體系化해 나가야 할 것이 要望된다.

Ⅳ. 情報의 集約化

WTO體制와 關係없이 輸出依存도가 높은 우

리나라의 경우, 時時刻刻으로 急變하는 情報에 鈍感하여서는 産業의 國際競爭力은 勿論이고 모처럼 好機의 先進國進入에도 주춤거리지 않을 수 없다.

말하자면 우리는 무서운 速度로 展開되는 情報化時代에 살고 있다. 이러한 情報化時代에 뒤지지 않고 順行同化하기 위하여는 各種 情報을 資料로 集積하여 우리의 中小企業들이 接近하고 利用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政府, 銀行 및 모든 中小企業關聯機關들의 情報網이 最大限 開放될 수 있도록 便宜를 提供하여야 한다. 特히 情報의 信賴性提高와 確保를 위하여는 情報窓口의 一元化 및 情報源入手의 저렴한 有料化도 檢討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V. 資金供給의 圓滑化

우리 中小企業이 겪는 隘路事項中 우선 순위에 屬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資金難이다. 애당초 적은 有限의 資本으로 出發하는 것이 中小企業의 生理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더우기 中小企業은 事業을 擴張하거나 技術開發 또는 新製品開發이나 市場開拓을 위해 必要한 資金을 供給받으려 해도 物的擔保不足 및 信用評價制度의 未備等으로 制度圈金融을 利用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마련이다. 따라서 中小企業에 對한 기존의 資金供給體系도 WTO에 맞추어 바뀌어야 하지 않을 까 생각된다. 즉, 金融機關들도 새로운 先進金融技法을 導入하여 擔保爲主의 貸出을 止揚, 企業의 事業性 및 經營能力等を 綜合分析한 企業信用評價를 土台로 한 評點에 依한 貸出金의 限度設定 및 中小企業에 有利한 償還方式等의 새로운 貸出制度를 摸索하고 發掘하여 中小企業體에 對한 資金供給이 보다 원활해 지도록 하는 金融기관的 方向轉換이 要求된다. 特히 現行 金融制度下에서도 中小企業에 對한 資金供給은 圓滑치 못 한 터인데 金融의 自律化가 推進되고 中小企業銀行 및 國民銀行等이 民營化되어 中小企業에 對한 資金供給窓口는 그 만큼 縮小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憂慮를 排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中小企業에 對한 새로운 資金供給체널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資本市場의 開放化나, 金融市場의 自律化는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資金力이 弱한 많은 有望中小企業들이 私債에 依存하지 않을 수 없는 狀況에 이르고, 나아가 자칫하면 短期收益을 노리는 惡德 內·外投資家들에 露出되어 흡수합병(吸收合併)되어 이 땅의 많은 中小企業들이 설 자리를 잃고 淘汰되지 않을 까 우려된다. 때문에 이러한 事態가 생기지 않도록 充分한 事前 對應策이 모색되어야 할 것 같다.

VI. 公正한 去來秩序의 風土造成

WTO體制下에서 中小企業에 對한 支援施策이 強化되지는 못 할지언정 自由로운 競爭의 場이 위협을 받아서는 雪上加霜이 아닐 수 없다.

昨今の 우리 中小企業은 大企業들의 經濟力集中과 中小企業의 固有業種侵害等으로 적지 않은 피해를 입어 온 것이 事實이다. 大企業의 이러한 經濟力集中현상은 國際競爭力次元에서 부득이 하다는 論理를 앞세워 中小企業의 領域을 侵害하고 유린하는 大企業들의 獨寡占行態야 말로 社會的 違和感과 地域間 經濟的發展의 不均衡 및 갈등을 빚는 要因이 아닐 수 없다. 때문에 企業의 倫理的側面과 經濟的弱者의 保護側面에서도 企業間의 自律競爭과 公正去來秩序는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 先進國의 例를 보더라도 中小企業에 對한 創業과 市場確保에 對한 政策的 支援과 多角的인 制度的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點에서 우리의 現行 公正去來秩序에 關한 法的規制나 法的保護裝置는 有名無實하고 未吸하므로 政府側의 再整備·補完이 있어야 하겠다.

以上에서 言及한 內容에 關하여 政府는 各界各層의 專門家的 지식과 意見, 經驗, 勸告 및 提議等を 幅 넓게 受容하고 整理해서 適切한 制度的裝置를 마련함과 同時에 果敢한 投資를 集中시켜 나가야 한다.

四. 中小企業의 對應策

WTO體制의 出帆과 함께 政府의 多角的인 世界化戰略에 맞추어 中小企業은 나름대로의 對應策을 講究하여 實效性있게 適應하고 살아 남기 위한 競爭戰略을 具體化시켜 나가야 한다.

政府의 中小企業支援政策과 戰略이 世界化推進을 위해 차질없이 이루어진다면 中小企業側에 要求되는 具體的인 對應戰略은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먼저 企業을 經營하는 經營主는 世界化에 걸맞은 마음가짐부터 바뀌어야 한다.

國境없는 國際競爭時代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고 世界化의 추세에 발 맞추어 나가기 위하여 企業經營主는 世界化의 大勢에 따른 機會와 危險을 同時에 맞이하게 되는 위험부담을 直視하여 최대한 活用하되 위험에 대비한 임기응변적인 대비책도 마련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企業人은 스스로 새로운 情報과 相關업종의 지식뿐만 아니라 폭 넓게 다른 분야에까지의 경험과 지식습득에 게을리하지 말고 항상 깨어있는 상태의 經營관을 갖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企業人 스스로가 평소 이러한 經營관에 입각하여 企業을 운영해 나간다면 내수시장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까지 眼目を 넓혀 어느 製品이 市場性이 높고 어느 商品, 또는 어떤 서비스가 경쟁력 있는지를 조사하고 파악하여 여기에 맞추어 경쟁력있는 제품생산이 가능하도록 모든 자금과 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능동적이고 신속한 經營전략을 펴 나가야 한다.

이러한 經營전략을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는 企業內部的 經營조직을 재 점검하여 모든 구성원이 창의력과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존의 조직을 재편해 나가야 한다. 즉, 종업원들에게 업무수행상의 재량권을 최대한 부여하고 그로 인한 責任은 모두 經營주에게 귀속시킨다는 분명한 責任限界를 바탕으로 經營방침을 표방하여 노사간의 和合뿐만 아니라 사무직과 기능직

간의 상호신뢰감도 조성되도록 經營조직을 다져 나가야 한다.

이러한 人的조직기반없이 企業의 世界化戰略은 한낱 空念佛에 불과하고 시행착오만을 自招할 뿐이다. 아울러 企業經營主는 企業經營을 종업원들에게 開放하여 종업원들이 主人意識을 갖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종업원은 회사와 共同운명체임을 인식하게 되어 스스로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고 책임을 다하는 企業환경이 조성되어 經營조직도 活性化되어 世界化戰略수행이 비로서 可能해 진다고 할 수 있다.

五. 맺음말

以上과 같이 WTO의 出帆과 함께 世界化에 대비하여 정부측의 역할과 中小企業의 對應策을 살펴 보았다.

WTO體制가 아니더라도 다가오는 21세기는 우리에게 많은 시련과 도전을 예고하고 있다. 公索로 인한 지구환경의 변화로부터 지구는 하나의 시장으로 변모하여 국경없는 경제전쟁 그로인한 대내각국간의 통상마찰, 급속한 기술개발싸움, 지역간 Block化현상 등등이 우리를 엄습해 오고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우리 경제는 성장규모와 내용면에서 과거와는 크게 달라지고 있다. 밖으로는 開放化와 自由化의 壓力이 거세게 밀려오고 안으로는 소비자의 수요패턴이 다양화 되어 종래의 생산방식과 기술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實情이다.

오늘날처럼 급변하는 국내의 경제환경과 여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길은 우리 모두가 변화의 흐름을 예의주시하면서 새로운 가능성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그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히 수집·파악하고 活用하는 꾸준한 노력과 지혜가 요구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WTO體制下에서의 우리 中小企業이 추구해 나가야 할 世界化方向도 결국은 政府나 누구에게 依存한다기 보다는 스스로

의 힘을 키워 나가는 수 밖에 없다. 최근 政府의 中小企業政策을 보는 시각도 自生力을 갖춘 中小企業이나 구조적인 문제의 企業이 아닌 一時的인 資金難 또는 技術開發이나 해외시장개척에 필요한 자금난을 겪는 中小企業만을 선별해서 지원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우리 中小企業의 急先務는 무엇보다도 內部的인 경영조직의 혁신을 통해 다각적인 정보의 수집과 활동을 게을리 하지 않는 투철한 기업가로서의 使命感

과 프로적인 기업가정신의 함양이다. 이러한 프로적인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世界化를 向한 강한 執念과 도전의지만 있다면 「뜻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金言처럼 어떠한 中小企業도 WTO體制에 適應하고 對應하는 自生力을 갖게 되어 世界化를 스스로 體得하는 世界的인 一流企業으로 成長·發展해 나갈 수 있지 않을 까 생각된다.

레미콘 技術賞 制定

당협회는 레미콘에 관한 연구와 기술수준을 향상, 촉진함으로써 한국레미콘공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레미콘 기술상을 제정하였습니다. 회원사 여러분의 적극적 참여로 훌륭한 연구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1. 시상부분 : 당해년도 레미콘지에 발표된 논문중에서 선정
가. 논문부문
나. 기술정보부문
2. 시상대상 : 당협회 회원사임직원
3. 시상인원 : 2명(각 부문 1명)
4. 시상일 : 1995년 12월
5. 시상내용 : 상장 및 부상
6. 기술상 심사 : 당협회 기술분과위원회

기타 상세한 내용은 당협회 기획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레미콘공업협회 기획과
TEL(02)566-7162 FAX(02)554-7420